



EBB 실모공방

2027학년도 대비

심화편 ADVANCED

2027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문논술 실전 모의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6문항 11소문항 · 80점 · 120분

2027 모의논술 가이드북의 문항 형식·배점 반영

공식 모의와 같은 채점 방식(체크리스트형·수준형)

2026년 최신 시사 통계 + 고교 교과서 제재

ADVANCED

실전 모의고사

제6회

이 파일은 EBB 실모공방이 자체 제작한 유료 교재입니다.

무단 공유를 보시면 구매한 곳의 EBB 실모공방 문의 창구로 알려 주세요.

© EBB 실모공방

제6회 실전 모의고사 · 인문계열 · 심화편

시험 시간 120분 (목표 풀이 시간 100분) · 6문항 11소문항 · 총 80점

수험번호

성명

응시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실전과 같이 시계를 두고 끝까지 풀어 보십시오.
2. 답은 반드시 답안지의 해당 문항 칸에 쓰십시오. 문제지에 쓴 답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3. 계산기와 사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그래프의 수치는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4. 각 문항의 ※ 조건(문장 수, 글자 수, 반드시 넣을 표현)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5. 답안은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십시오(연필 사용 가능).

문항 구성

문제	배점	문항 형태	답안 조건
문제 1	20점	표 해석 → 판단·선택 + 이유 쓰기	2문장 이내 / 3문장 이내, 필수 표현
문제 2	10점	반박 관계 요약, 빈칸 찾아 쓰기, 증감 판단	200자 이내 / 각 6자 이내
문제 3	10점	그래프 해석 + 제시문 핵심 주장	300자 이내
문제 4	17점	사상 빈칸 + 제시문 근거 서술	300자 내외
문제 5	13점	한국사 시간 순서 배열 + 용어·반론	100자 내외
문제 6	10점	상황 속 사과문 쓰기	200자 내외

답안 작성 요령

- 글자 수는 공식 모의 가이드북의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에 맞추어 씁니다. 서술형 답안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세고, 빈칸 단답의 '각 ○자 이내'는 띄어쓰기를 빼고 씁니다(공식 예시 답안은 '각 6자 이내' 빈칸에 '노령화의 추세'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지는 띄어쓰기·문장 부호·숫자 한 자리도 한 칸입니다.
- 발문의 가)·나)는 답을 나누어 쓰는 칸의 표시이며, 답안지의 같은 표시 칸에 씁니다. 제시문 (가)·(나)와는 다릅니다.
- '○○자 이내'는 한도를 넘기면 감점합니다. '○○자 내외'는 기준의 85~115%를 목표로 쓰고, 50%에 못 미치거나 150%를 넘으면 감점합니다.
- '찾아 쓰시오'는 제시문에 있는 말을 글자 그대로 옮겨 씁니다.
- 제목이나 서명을 쓰면 글자 수에 포함됩니다(쓰지 않아도 감점은 없습니다).

문제 1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20점

(가) 소득에서 기본 공제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몫을 뺀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 하고,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재원이 된다. 소득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직접세이다. 물건값에 얹혀 걷히는 부가 가치세는 둘이 다른 간접세이고,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이다. 소득세는 이와 달리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매길 수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금은 덜어 주므로, 세금을 낸 뒤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다만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높아지면 더 벌어도 손에 쥐는 몫이 적어 근로 의욕이 꺾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D국은 과세 표준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과세 표준 가운데 각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해 더한 금액을 소득세로 걷는다. 납세자는 자기 과세 표준이 속한 구간에 따라 하위·중간·상위 구간 납세자로 나뉜다. D국 정부는 기본 공제와 구간별 세율을 함께 손보는 소득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개편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세수를 늘리고 근로 의욕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같은 구간 납세자의 연 소득은 모두 같고, 표 2의 납세자 수와 연 소득은 개편 뒤에도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표 1 D국 소득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구분	적용 대상	개편 전	개편안
기본 공제	납세자 1인당	500만 원	1,000만 원
세율	하위 구간(과세 표준 3,000만 원 이하)	5%	5%
	중간 구간(과세 표준 3,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0%	15%
	상위 구간(과세 표준 1억 원 초과)	35%	45%

표 2 D국 소득세 납세자의 구간별 현황(2025년 소득 기준)

구분	하위 구간	중간 구간	상위 구간
납세자 수	600만 명	300만 명	100만 명
1인당 연 소득	2,000만 원	5,000만 원	2억 500만 원

1-1 표 1과 표 2를 바탕으로, 개편안이 시행되면 D국 납세자 전체의 과세 표준 합계에서 상위 구간 납세자의 과세 표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고, 나) 그 이유를 쓰시오. (10점)

※ 나)의 답안은 반드시 2문장 이내로 작성하고, 답안에는 반드시 "기본 공제"와 "과세 표준"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시오.

1-2 표 1과 표 2의 자료에 근거하여, D국의 소득세 개편안이 제시문에 제시된 목적(① 소득 재분배 강화 ② 세수 확대 ③ 근로 의욕 제고) 중 어느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는지 가) 목적 하나를 고르고, 나) 이유를 쓰시오. (10점)

※ 나)의 답안은 반드시 3문장 이내로 작성하시오. 답안에는 표 2에 제시된 수치를 반드시 활용하고, "세율"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시오. 답안에는 가)에서 고른 목적의 핵심어를 그대로 포함하시오.

준다. 따라서 전체 과세 표준 합계가 425조 원에서 375조 원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상위 구간의 비중은 약 47%에서 52%로 증가한다.

■ 채점 체크리스트

- ☐ 가) 증가로 판단했다 (감소·변화 없음은 0점) **3점**
- ☐ 나) "기본 공제"라는 표현이 있다 **1점**
- ☐ 나) "과세 표준"이라는 표현이 있다 **1점**
- ☐ 나) 표 1·표 2의 인정 요소를 2개 이상 썼다 (1개면 1점, 표와 무관한 일반론은 0점) **2점**
- 표의 값은 기본 공제(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납세자 수(600만·300만·100만 명), 1인당 연 소득(2,000만·5,000만 원·2억 500만 원)이다. 세율도 표 요소로는 인정한다.
 - 계산값은 구간별 과세 표준 합계(하위 90조 원에서 60조 원, 중간 135조 원에서 120조 원, 상위 200조 원에서 195조 원), 전체 합계(425조 원에서 375조 원), 감소 폭(30조·15조·5조 원), 상위 구간의 비중(약 47%에서 52%), 1인당 과세 표준(상위 2억 원에서 1억 9,500만 원 등)이다. 서로 다른 값마다 1개로 센다.
 - 수치 없이 표의 행을 정확히 지목한 진술('기본 공제가 두 배로 늘었다', '하위 구간 납세자가 가장 많다')도 요소 1개로 인정한다. 필수 표현만 쓴 것('기본 공제가 늘어')은 표 요소로 세지 않고, 바뀐 크기(500만 원, 두 배)가 있어야 한다. 같은 수치가 논리 단계에 다시 쓰여도 두 요소에서 모두 인정한다.
- ☐ 나) 논리 3단계 가운데 들어 있는 수만큼 1점씩 **3점**
- ① 기본 공제가 늘어 납세자마다 과세 표준이 같은 금액(500만 원)씩 준다. 상위 구간의 과세 표준도 준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납세자마다', '모든 납세자의'처럼 상위 구간을 포함하는 말로 같은 금액의 감소를 쓰거나 200조 원에서 195조 원을 쓰면 인정하고, '하위 구간의 과세 표준만 준다'처럼 상위 구간을 빼면 인정하지 않는다.
 - ② 같은 금액이 빠져도 납세자가 많고 소득이 적은 하위·중간 구간의 과세 표준 합계가 상위 구간보다 크게 준다(30조·15조 원 대 5조 원, 또는 감소율 약 33%·11% 대 2.5%). 수치 없이 '납세자가 많은 하위 구간의 과세 표준이 더 많이 준다'고 써도 인정한다.
 - ③ 그러므로 전체 과세 표준 합계에서 상위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결론(약 47%에서 52%)을 쓰면 더 좋지만 없어도 인정
- ☐ 나) 2문장을 넘겼다 **-2점**

내 점수 _____ / 10점

■ 허용 답 · 불인정 답

- 커진다, 높아진다, 늘어난다는 증가와 같은 판단으로 인정한다.
- 반대 방향 요소(상위 구간의 과세 표준 감소)는 말로 짚지 않아도, 두 시점의 수치가 모두 들어간 계산(200조 원 ÷ 425조 원과 195조 원 ÷ 375조 원)에 반영되어 있으면 ①로 인정한다. 한 시점의 값만 쓰면 인정하지 않는다.
- ②를 1인당으로 보여도 인정한다. 하위 구간 1인당 과세 표준은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3분의 1이 줄지만, 상위 구간은 2억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2.5%만 준다.
- × '상위 구간 과세 표준이 200조 원에서 195조 원으로 줄었으니 비중도 감소한다'는 반대 방향 요소만 본 답이다. 가)는 0점이고, 나)는 필수 표현과 표 요소만 채점한다. 전체 합계는 50조 원이 줄어 상위 구간보다 훨씬 크게 준다.
- × '모든 납세자에게 똑같이 500만 원씩 더 빼 주므로 비중은 그대로'는 가) 0점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600만 명에게서 빠지는 몫(30조 원)과 100만 명에게서 빠지는 몫(5조 원)이 다르다.
- × '상위 구간 세율이 35%에서 45%로 올라 비중이 증가한다'는 가)는 3점이지만 논리 ①·②는 0점이고 ③만 인정한다. 과세 표준에는 세율이 곱해지지 않는다. 쓴 세율은 표 요소로 인정한다.
- × 개편 전 과세 표준에서 새 공제 1,000만 원을 한 번 더 뺀 값(상위 190조 원 등)은 표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늘어난 공제는 500만 원이다. 판단 방향이 맞으면 가)와 ③은 인정한다.
- × 가)에 '증가'를 썼어도 나)에 결론 문장이 없으면 ③은 0점이다.

■ 답안 비교 (상·중·하)

상 10점

- 가) 증가

공백 포함 **208자** · 공백 제외 156자 · 2문장 · 조건 2문장
기본 공제가 500만 원 늘어 납세자마다 과세 표준이 500만 원씩 줄면, 600만 명인 하위 구간은 90조 원에서 60조 원, 중간 구간은 135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줄지만 100만 명인 상위 구간은 200조 원에서 195조 원으로 조금만 준다. 전체 과세 표준 합계가 425조 원에서 375조 원으로 크게 줄어 상위 구간의 비중은 약 47%에서 52%로 증가한다.

- 득점: 가) 3 + 기본 공제 1 + 과세 표준 1 + 표 요소(납세자 수, 구간별·전체 과세 표준, 비중) 2 + 논리 ①②③ 3 = 10